

자판기, 이제 장애인 및 노약자를 배려하자

지난 3월 4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 일본 VENDEX 전시회에 있어 인상적인 품목 중의 하나는 장애인 및 노약자를 배려한 자판기였다. 후지전기소매시스템에 의해 선보인 '장애인 및 노약자 배려 자판기'는 선택 버튼의 점자표시는 물론 리프트 업 투출장치(*투출구 높이를 기존 제품보다 끌어올려 사용이 편리하게 한 장치), 투출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장치,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위한 손잡이 등의 편의기능을 채택했다. 사회적인 약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노약자들이 자판기를 사용할 때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탁월한 기능을 갖추었다. 물론 이 자판기가 대중적인 수요를 겨냥한 제품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시스템 상으로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어 필요로 하는 로케이션에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자판기 산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일본의 현실에 비하면 우리 자판기 산업계의 장애인·노약자 배려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거의 이 문제에 대처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00년대 초,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장치 보급을 확대하는 일을 하는 일본의 한 공공단체에서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 당시 이 협회의 책임자는 장애인·노약자 배려에 전혀 관심이 없는 국내 자판기 산업계의 현실을 보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도 자판기 분야에 있어서는 선진국이라 할 만큼 많은 자판기가 보급된 현실에서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장치를 강화할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 적이 있었다.

그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국내 자판기 산업은 여전히 이 문제에 등한시하고 있다. 마치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자판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

다는 듯한 심산인가? 장애인·노약자 배려에 자판기 산업계는 너무도 무관심하다. 법적인 규제가 없어서일까. 그런 것만도 아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자동판매기 관련 구조 재질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그 내용 중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 버튼에는 품목·금액·행선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내용에서 볼 수 있듯 적어도 조작버튼에 대한 점자표시는 법적인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이 사실을 제대로 주지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관련 부처의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 탓도 있지만 자판기를 영업용기기로서 측면만 중시했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공성을 중요시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산업계는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장치를 강화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적어도 자판기 조작버튼에 점자표시를 하는 것만이라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 문제를 운영업체별 자발적 준수사항 정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아예 제조업체에서 제품 생산 시 의무적으로 채택을 하여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실천이 하나하나 전제가 될 때 장애인·노약자 편의장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자판기 산업계가 장애인·노약자 등 이용자 측면에서 자판기를 본다면 길은 분명해진다. '불편하면 개선하라.' 자판기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듯한 손길이 스며들 때 존재가치 역시 높아지기 마련이다. 자판기에 '인간미'마저 느껴지게 한다면 사람의 발길 역시 찾아지지 않을 까.